



(재)여의도연구소
www.ydi.or.kr

The Youido Institute

통권 14호 Vol. 2010-01

이슈브리프

ISSUE BRIEF

발행처 · 여의도연구소

발행인 · 진수희

발행일 · 2010년 4월 0일

4대강 살리기 사업

이명박 정부는 홍수와 물 부족에 대비하고 수질 개선과 생태하천 조성, 강 중심의 지역발전 및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.

그러나 야당에서는 아직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4대강 사업예산을 복지 등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
이에 이번호 이슈브리프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,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적 당위성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.

CONTENTS

- I.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
- II. 야당이 제기한 문제점 및 반론

※ 첨부자료

-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

〈Issue Brief〉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것입니다.

〈Issue Brief〉에 개진된 내용은 한나라당 및 여의도연구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.

I.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

□ 사업 추진목표

- 홍수·가뭄 피해의 근원적 예방,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수량 확보 및 수질 개선,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,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 등

□ 사업 기대효과

- 홍수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
 -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(9.2억^m³)하고, 13.0억^m³의 용수량 증대를 통해 홍수와 가뭄에도 안전한 강으로 복원
-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
 - 2012년까지 2급수 비율을 86% 수준으로 향상시키고, 생태하천 복원과 친환경 수변벨트 조성으로 생태환경을 개선
-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
 - 수변 접근성 개선과 문화·휴식공간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
-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 - 총 34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, 약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

☞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: 조원)

구 분	'09	'10	'11	'12	계
국 토 부	0.8	3.2	3.3	0.1	7.4
농식품부	0.1	0.5	1.1	1.2	2.9
환 경 부	0.8	1.3	1.3	0.5	3.9
합 계	1.7	5.0	5.7	1.8	14.2

출처: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(2010.4)

II.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및 반론

①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환경이 파괴될 것이다?

⇒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은 개선되고 생태환경은 살아나게 됨

□ 수질 : 현재 76% 수준인 2급수('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', BOD 3mg/L)가 2012년에는 86% 수준으로 높아짐

○ 풍부한 수량 확보로 수질을 개선함

- 물이 부족하면 수질이 악화됨. 보 건설·준설·제방보강 등을 통해 물 저장량을 대폭 늘리고(13.0억m³의 용수량 증대), 수위를 조절해 사시사철 풍부한 강물을 흘려보냄으로써 수질을 개선함
- 수질과 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물을 흘려보내는 16개의 가동보를 설치하여 수질을 관리함

☞ '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된다'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

- 16개의 보는 수문 위·아래로 물을 흘려보내주는 친환경 가동보임
- 물을 가둬놓은 댐에서도 수질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음
- 북한강 : 팔당댐 등 7개 댐이 설치되어있지만 수질문제 없음
- 소양호·충주호 : 물 체류시간이 200~400일이지만 1급수 유지

○ 다양한 수질개선 대책을 시행함

- 4대강 수질이 나쁜 원인은 물 부족 이외에 △낮은 하수도 보급률(81.6%), △축산·농경지 비점오염(비료·농약·가축 분뇨) 등임
- 수질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(한강 11개, 낙동강 10개, 금강 9개, 영산강 4개)을 중점관리유역으로 설정하여 수질개선 사업을 전개함
- 하수도 보급률 : 81.6%('07년) ⇒ 91%('12년) 이상으로 제고
- 비점오염 저감 특별대책을 수립·시행
- 다양한 생태하천·습지 조성으로 오염물질을 흡수, 수질을 개선함

☞ 수질개선 사례

-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 2개를 설치한 한강종합개발('86년) 전후 수질현황 (BOD 기준)

구분	'84년	'07년
한강대교	6.8mg/L	3.5mg/L
가양대교	15.7mg/L	3.0mg/L

출처 : 환경부 '준설등에 의한 수질영향 사례조사(2008.8)

□ 생태 환경 : 넉넉한 강물과 다양한 친환경 대책으로 생명이 살아
나고 생태계가 풍요로워지게 됨

○ 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대책을 시행함

- 하천내 경작지, 비닐하우스, 무허가 시설을 정리함
 - 농약, 비료 등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여 생태 복원
- 국가하천 929km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함
 - 생태하천 154개소, 생태습지 35개 지구(43.5km) 조성
- 16개의 보와 하구둑 주변에 자연형 물고기길(어도) 23곳을 설치함

○ 콘크리트는 극히 일부 구간에 사용됨

- 4대강 사업 전체 공사구간 613km중 6%(37km)에 콘크리트 사용
- 전체 콘크리트 사용량도 준설량(5.7억m³)의 0.4%에 불과

☞ 생태환경 개선 사례

- 한강종합개발('86년) 이후 생태계 변화

구분	'87년	'07년
어류	42종	71종
조류	39종	98종

출처 : 환경부 조사결과('87년~'07년)

② 형식적인 문화재 조사로 문화유산이 파괴될 것이다?

⇒ 문화재 조사는 치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,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강 주변의 문화유적 가치가 재창조됨

□ 4대강 사업 문화재 조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시행하고 있음

○ 2009년 2월부터 3개월 동안 문화재청이 고시한 발굴 전문 23개 기관 220명이 지표조사에 참여하여 철저히 조사를 진행함

↳ ‘무허가 업체가 2개월만에 지표조사를 끝냈다’는 주장은 근거없는 낭설임

○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밀집 분포지역은 이미 사업계획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,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도 철저하게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

○ 주요 하천유역에 대해 상당수준의 문화재 조사 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며, 향후 문화관광 자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게 될 것임

③ 4대강 사업의 과도한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이 축소되었다?

⇒ 4대강 사업이 복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, 복지부문 예산은 오히려 대폭 증가함

□ 4대강 사업은 장기적으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임

○ 매년 홍수 및 가뭄 피해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

- 최근 5년간('02~'06) 연평균 홍수 피해액은 2.7조원, 복구비는 4.2조원에 달함

- '08년~'09년의 경우 가뭄으로 48개 시·군(7만 세대)가 제한 및 운반급수를 실시함

○ 이런 결과는 강과 하천에 대한 무관심과 투자부족에서 기인함

☞ 최근 10년간 SOC 투자 현황

(단위:조원)

구분	도로	철도	하천
금액	77.9	36.4	8.8

출처: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(2010.3)

○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해 투입되는 국가 예산을 근원적으로 절감하는 사업임

□ 4대강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, 복지 등 민생 부문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

○ 2010년도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(3.2조원)은 정부재정(292.8조원)의 1% 수준에 불과하여 민생예산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없음

○ 2010년도 예산의 경우, 복지부문 예산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(2.5% 증, 7.3조원 ↑)보다 3배 이상(8.6% 증, 6.4조원 ↑) 증가하였고,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(27.8%)임

☞ 최근 4년간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문 비중

(단위:조원)

구분	'07년	'08년	'09 본예산	'09 추경	'10년
복지지출	61.4	68.8	74.6	80.4	81.0
복지지출/총지출(%)	25.8	26.2	26.2	26.6	27.8

출처: 보건복지부 예산안 설명자료(2009년)

☞ 분야별 '09 본예산 대비 증감 규모

(단위:조원)

구분	복지	R&D	국방	교육·과기	SOC	산업·에너지
증감	6.4↑)	1.3↑	1.1↑	0.5↑	0.1↑	1.8↓

출처: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

④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단순노무직 1만명 정도다?

⇒ 4대강 사업으로 다양한 직종에서 총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됨

□ 4대강 사업은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까지 유발하여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임

○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고용표 및 관련계수에 따른 추계에 의하면 약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

☞ 4대강 살리기 예상 취업유발 효과

(단위:천명)

구 분	'09	'10	'11	'12	계
국 토 부	8.2	92.0	115.3	15.5	231.1
환 경 부	15.1	22.1	22.2	7.7	67.2
농식품부	0.7	6.4	20.5	21.2	40.0
합 계	24.1	125.5	153.3	44.5	338.4

* 34만명='06년 건설업취업유발계수(17.3명/10억원)×19.4조

○ 전국적으로 골고루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

☞ 권역별 일자리 창출 효과

(단위:천명)

구분	수도권	충청권	전라권	영남권	합계
일자리	72.6	49.4	54.4	180.3	356.7

출처 :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(2009.7)

□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양한 직종에서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임

○ 사업의 성격상 최초의 일자리는 건설부문에서 발생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으로 확대됨

- △건설 13만명(39%), △기타 산업 22만명(61%)

○ 현재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인력투입이 되고 있지 않지만, 2단계 사업이 착공되면 고용창출 효과가 가시화될 것임

⑤ 4대강 사업은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지천부터 정비해야한다?

⇒ 사업의 성격상 조속히, 본류 정비 후 지천 정비를 시작해야함

□ 홍수피해를 막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야 함

- 우리나라는 6~9월에 연강수량의 2/3이 집중되어 있어 공사 일정이 장기화될 경우에 여름철 홍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
-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공사비용의 급증을 방지하고, 장기 공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

□ 본류 정비 이후에 지천 정비에 착수하는 것은 물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공정임

- 4대강 본류를 정비하여 홍수 때 많은 양의 물을 담수·방류하면 지천의 물길도 자연스럽게 낮아져 전체적으로 피해가 줄어들게 됨
 - 퇴적물이 쌓인 큰 물길에 많은 물이 흐르지 못하면 작은 물길로 물이 역류되어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됨
- 시급한 본류 구간을 우선 정비하고 지천 정비에 착수할 예정임('10년 10월,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종합계획 발표 예정)

<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 >

- ‘유엔환경계획(UNEP)’
 - ‘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이며, 가뭄·홍수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녹색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’(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중간보고서, 2009.8)

- ‘유엔환경계획(UNEP)’ 슈타이너 총장
 - ‘4대강 사업은 진정한 녹색투자이자 훌륭한 국가 프로젝트다’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’(2009.8)

- ‘앙투앙 그랑바크 교수’(프랑스 세느강 재개발 총지휘)
 - ‘한국의 4대강 사업은 전 국토의 주요 강에 대해 통합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보다 한 단계 앞선 녹색정책’(2009.10)

- ‘세계물 환경보건연구소(GIWEH)’ 니달살림 소장
 - ‘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이라는 세계적인 화두에 있어서 물과 관련된 첫 모델’ ‘4대강 사업은 한국을 위한 기회이자 국제사회에서 수자원 문제를 부각시키는 원동력으로 자리잡을 것’(2010.1)

- ‘세계자연보전연맹(IUCN)’ 줄리아 사무총장
 - ‘한국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합리적인(reasonable) 사업이다’(2010.3)



여의도연구소